

**미**셀 푸코는 그의 작품에 여러번 나오는 말(미록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미마나 '경악'과 '두려움'으로 대했던 고문서와의 만남(특히 폐쇄의 고문서와의 만남)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다면 좀 지나친 생각일까? 이 경악과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그의 사유 속에 치곡차곡 쌓였고 이후 그의 수많은 분석들이 모두 이 논리에 복종했다.

나는 이 창시적이고 근본적인 만남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데, 1977년에 쓰여진 별로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 La vie des hommes infâmes」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 텍스트 (미록 푸코가 다른 상황에서 그에게 유용했던 다른 관계들을 동시에 환기시키려하고 있기는 하지만)여하튼 이것은 그가 고문서와 맺은 여러 관계 중 하나가 분명히 드러나는 일종의 마더라고 할 수 있다)를 살펴 보기 전에 우선 「광기의 역사」 안에서 그와 이 특이한 인생들에게 기을

였던 관습 — 수고(手稿)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기의 역사』 제1부는 우리의 주제를 아주 잘 밝혀 주고 있다. 여기서 미셸 푸코는 중세말에 문둥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과정을 묘사한 후, 르네상스의 주요 체험들과 연결되어 있던 광기가 17세기에 와서 어떻게 비판적 성찰에 의해 물수되고, 다른 주변부의 형태들, 예컨대 망상, 질병들과 나란히 감금되고 추방되어 그 이후로는 이 연관성과 인접성을 해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광기는 범죄와 나란히 놓여지게 되었다. 그후 수세기 동안 정신적란이 죄의식과 연결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라고 그는 썼다.

16세기에 광기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이었다. 신비한 얇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인들의 배는 이 사람들을 공동으로 향해 시켰는데, 이 항해는 세계의 필연성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내기 위해 버릴의 세계를 통찰하는 우주적 비전과 비극적 경험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17세기에 와서 시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광기는 도덕적 세계 안에 자리잡았고, 거기서는 질병이 곧 과오였다. 사람들은 광기의 체험에서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도저히 건너 뚫 수 없는 거리를 두었다. 얇과 진실의 근원이라는 광기의 비극적인 요소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광기의 역사』 곳곳에서 길게 묘사되고 추론된 그 시대적 배경들은 철학과 문학에서의 수사적 표현들과 고전주의 시대를 다채로운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예컨대 경찰 기록, 병원의 장

부, 감금의 기록들에 의해 생생하게 제시된 과거 시대의 정신착란의 흔적들과 얼마나 감각적이고 날카롭고 분명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눈여겨 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 이 고문서들은 실폐한 운명으로 고립된 얼굴들과 권력 앞에 불려나가 자신을 변명하는 수많은 남녀들의 노닥없는 출현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셸 푸코는 두려움 섞인 경악 속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지성으로 이 출현을 포착하고, 보슈 Jérôme Bosch [르네상스 시대 화란의 화가]와 뒤러 Albrecht Dürer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화가]의 인물들에서, 또 는 광인들의 배의 허술한 보트에 올라탄 인물들에서 의미를 끌어낼 때와 똑같은 명민함으로 이 허창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각기 다른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 이들의 운명을 관찰했다. 이들 중에는 상명환자들, '머리에 금간 사람들', 머리 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찬 괴짜들, 기억력을 상실한 알콜중독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미셸 푸코는 이들 모두가 하나의 건축적, 담론적 공간 안에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과 교회의 왕정이 그들에게 마련해주려 했던 연계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질서 및 이상과 사이가 벌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그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수용은 아주 상이한 사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그리고 단지 그들이 '낯선 길에서 방황 하거나 가정이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정의 세계와 관계를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기정적, 종교적 성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이상의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방탕자, 난봉꾼, 추행범, 부정한 남편, 성병 환자, 동성연에서 동등이었다. '광기와 함께 범죄의 후광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죄된 이 행동들은 익명으로 혐의받고 기소된 남녀들의 것이

며, 고문서들 안에서 그들은 얼굴과 감각과 분노로 구체화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푸코에게 있어서 연구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본적이고도 내밀한 밑받침이 되었다. 왜냐하면 봉인서와 감옥 및 수용소의 기록들이 그로 하여금 몸이 여기저기 뒤틀린 불구자, 병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비참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삶을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분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소의 탄생』이 '시인의 문제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는 그들의 운명을 추적하고 그 비정함과 수수께끼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그는 르네상스 시대 회화에서 보이는 인물들과 그들을 비교하고 어느날 갑자기 그들을 유배지로 몰아내기로 결정한 이성적 체계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끊임없이 묻는다. ('17세기')는 수세기전부터 개별화되었던 한 일군의 신들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는 썼다.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일탈자라는 규정으로 모호하게 된 17-18세기 평인들의 흐릿한 얼굴들이 고문서에서 뚜렷해졌다. 바로 이것이 푸코의 분석 대상 중의 하나이다. 푸코같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대인들의 의도적으로 눈 감았다는 증거를 읽어내는데, 도대체 어떤 언급술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광기의 역사』 3부는 수용 기록에 나타난 인간들의 이상함을 다루고 있다.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 Neveu de Rameau>를 분석한 것은 마치 중세에서처럼 정신착란이 이성의 벽이 아니라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되살려 놓았다. 아르토나 니체의 어떤 어조를 예고하는 디드로의 이 소설 주인공도 역시 고문서에서 마주치는 불특정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8세기는 이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함께 살며 그들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었다.

계몽주의는 어떤 사회적 흥분과 동요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동요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오로지 엘리트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체, 18세기의 정치, 사회분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민중에게 다시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 것은 혁명 기간 동안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을 때였다. 허버마스가 말했듯이 '천민의 영역'은 한번도 역사의 주체였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배제되었어도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거기에 대해 말을 할으로써 그들은 엄연히 역사 속에 존재했다. 장제니스트 사건과 루이 15세에 대한 최고법원의 형명 사건만으로도 교회와 왕정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민중이 얼마나 자신들의 저항과 신념을 다져 나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사건에 대해 사유하고 공격적인 일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풍경으로 주어졌던 어떤 것이 과연 동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그것을 문제삼음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남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더이상 하찮은 거리의 천민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다. 결국 '교란된'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풍경 안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18세기는 1720년부터 '수다떨기'를 시작했다(이것은 잡담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역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문과 떠도는 말들이다). 여기에 불안감이 수반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계획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념을 소유한 하층민들은 현실을 판단하고 창조하기 위해, 미래를 변혁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공식화하기 위해 공격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과학, 문학, 철학 분야가 동요하고 팽팽해져 넘쳐 흘렀다.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뜨거워졌다 고를 말했다. 미셸 푸코는 수용 시설 기록에서 '금'이 잔 머리로 평가 환

책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수없이 발견했다. 그들이 거기에 잡혀들어 온 것은 왕정을 비판했기 때문인지 또는 그들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철학자들과 어울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머리가 병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불운한 언설'로 바스티유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비판정신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를 구성했고 당국에 의해 광기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같은 시대에 사람들의 놀라움과 맞서 싸우며 들끓어 오르던 정신들은 감옥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존재였다.

자신들의 열광을 대변하는 철학 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익명의 실루엣들에 놀란 미셸 푸코가 말했듯이 계몽주의의 합리성은 잠시 '정신적란의 암묵적인 동반' (비록 그것이 새로운 사조가 도래하여 생긴 새로운 폭력성 속에서도라는 해도)에 둘러 싸여 있었다. 그때부터 <리모의 조카>를 분석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훈련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것은 말했거나 잘못 말했거나 혹은 너무 말했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의 구비구비 이량에 끌려 들어간 수많은 어리숙한 얼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그후에 이어지는 여러 글과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고문서의 직접적이고 함축적이고 민감한 지각작용이 푸코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저작은 이 만남을 약착같이 추적하며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 중 얼마간을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부 저작의 연대적 순서를 생각해 보자. 이 연대적 순서에 그 증거가 들어있다.

1973년에 미셸 푸코가 지도하고 일단의 다양한 전공 연구 팀이 19세기의 친부살해 사건에 대해 공동 집필한 『나, 피에르 리비에르... Moi, Pierre Rivière...』가 출간되었다. 자기 아버지와 누이와 형을 죽인 20세의 시골 청년이 1835년에 감옥에서 쓴 회고록이 이 책안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 후 1975년에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이 나왔다. 그 책에서 개진된 문제들의 대부분이 얼마나 고문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몇 개의 논문 (예컨대 『불가능한 감옥 L'impossible prison』)이 거기에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7년에 위에서 언급한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이 나왔고, 1년 뒤 『알렉시나 B라고 일컬어지는 에르퀼린느 바벵 Herculine Babin dite Alexina B』이 나왔다.

1982년에는 『가정의 혼란. 바스티유 고문서의 봉인서 Le Désordre des familles. Les lettres de cachet des Archives de la Bastille』가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수용시설 감호를 부각하는 가족들의 청원서, 그리고 가난한 가정들과 국가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었다. 이 책들 외에 미셸 푸코가 큰 관심을 기울였던 두 개의 영화를 이 연표에 덧붙여 보자. <알렉시나 Alexina B>와 르네 알리오 René Allio가 제작한 <나, 피에르 리비에르... Moi, Pierre Rivière...>가 그것이다.

그의 저술, 텍스트, 고문서 수록들은 자기 서로 다른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분석은 인식의 차원 전체를 사용하여, 미학, 철학, 기쁨은 문학.

또 혹은 전체적으로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분석은 확신에 차서 그 접근 방법들과 뒤섞여 있으며 미와 감각이 분명하게 서로 걸 문하는 언어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푸코가 고문서에서 찾아나온 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가설을 우리는 세워 볼 수 있다. 그는 경찰 문서 안에 우연히 들어있는 이 인물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자신과 자료와의 조우를 모든 의미에서 다루고 인문과학이 제공하는 분석의 가능한 모든 영역을 취급하려 한다. 모든 의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히 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여기에 엮여있다. 푸코는 이런 그의 의지가 결코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원된 대부분의 분석들이 최초의 놀라움과 경악의 충격을 계속적으로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1977년 1월에 발표된 20페이지의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 이 제목에는 “같은 제목으로 르 슈앵 총서 안에 들어갈 책의 서문”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다. 예고와는 달리 이 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1982년에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기정의 혼란』이 나왔는데, 여기서 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고문서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철학적 분석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자료는 삭제없이 완벽하게 전제되었고 그 허약한 본래의 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은 참으로 훌륭한 작품이다(나중에 들뢰즈는 이것을 걸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인문과학의 저작에 흔히 사용되는 전통적 수사가 배제되고 유달리 격분한 어조를 띤 이 책은 동시에 난폭하고 냉소적이고 절망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감시와 처벌」보다 2년 후에 나온,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부장문이자 공정문인 구절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푸코는 역사학자들의 비판 정치(나중에 『불가능한 감옥』에서 그는 이 정치에 대립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에 사로잡히거나 그들의 마음에 둘러고 애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그는 몇줄 건너서 ‘이 책은 그 누구보다도 역사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어조는 세심하게 선택된 것이다. 역사학자들과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감정을 가진 존재, 즉 자기 자신과 고문서 안에서 만난 존재들을 정식으로 대면시켜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분석의 집요한 의명성과 자신들의 소위 미묘한 역사 해석을 대립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앞질러 대답하는 것이다. 1977년에 ‘역사학자인 나는 푸코가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항상 그 안에서부터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불가능한 감옥』을 읽기 시작했을 때 푸코는 자크 레오나르(Jacques Léonard)의 글 『역사학과 철학자 L'Historien et le Philosophe』를 아직 읽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명철함이 논쟁을 미리 앞질렀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쓰면서 그는 자기 고유의 담론의 용어들을 제시했고 자신의 유일한 규칙은 자기 취미, 자기 재미, 하나의 감정, 웃음, 놀라움, 어떤 두려움, 혹은 또 다른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기 감정을 묘사하면서 그는 ‘육체적인 떨림’ 또는 ‘흔들리는 신경줄 같은 말을 썼다. 이것이 ‘안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인가?

재미, 웃음,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가 식물표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시적 인생들과 자신과의 만남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각들이 결정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감각들이고 사유의 주체가 되는 것도 감각들이며 감정과 미학에 의해 수수

끼쳐처럼 신비한 빛을 띄는 내용을 분석에 결들이는 것도 이 감각들이다. 이때 분석은 그것의 형식 부여에 기여했던 물리적 요소들 외에 다른 아무런 매개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주장은 아주 중요하다.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떠한 지적 연구에서 일체의 감정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내밀한 신념의 색깔을 띤 신랄한 꼬집음이다. 지금은 1991년인데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셸 푸코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감정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았다. (1980년에 도대체 누가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을 읽었던 탈인가?) 그런데 필립 르쥔느 Philippe Lejeune는 1991년에 정반대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는 피에르 리비에르 Pierre Rivière의 글에 대한 주석가들이 1835년의 한 젊은 범죄자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지나친 '범죄의 옹호'는 그 자체가 범죄적이라고 비판했다.<sup>10</sup> 1977년에 미셸 푸코는 자신에게 있어서 감정이 불리움 및 두려움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18세기의 하층은 인간들과 자신의 만남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코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광기의 역사』에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다루어진 이 주제는 피에르 리비에르와의 만남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공공연한 동인이었다.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이 우리의 경악에서 나왔다'고 쓰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네사람의 죽음을 물고온 한 텍스트에 대한 공포와 숭배'를 표명했다. 그렇다. '우리는 중화된 눈의 친부살해 범에게 완전히 매혹되었다'라고 그는 썼다. 이 글이 지성적이라고 그가 규정한 것은 이와같은 흥분에서 나온 것인데 그는 이 흥분의 실마리를 독자들에게도 주고 싶어했다. 푸코와 그의 연구팀이 피에르 리비에르의 글에 대해 유일한 독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젊은 범죄자

의 회상록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필립 르쥔느는 그것을 텍스트 파악과 개념화에 있어서의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결심은 해석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지적 도박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피에르 리비에르의 회고록이 언어의 모암(母岩) 속에 파묻혀 사라지기 전에 우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로 결정한 공저자들의 지성적인 합의가 분명하게 표명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푸코는 너무 많이 느꼈는가, 아니면 반대로 느낌이 충분치 않았는가? 영혼없는 구조주의와 감정의 일탈이라는 상반된 길 속에서 그에게 아무런 출구도 제시하지 않은 채 흔히 사람들이 그를 그 안에 가두는 그 공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에서 푸코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빠져나가려는 의미를 사로잡기 위한 타진 구명이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한 내밀한 장소이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은 그러나 담론이고 대부분 권력에 의해 결정된 고문서 내부에서 말로 표명된 이야기들이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고 다만 움직임을 강요하는 자세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침입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또 열정과 이성 사이에서 취해진 지성과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놀람 또한 비-인식에 사로잡히고 전통적인 현실 포착을 상실한 이 철학자의 이상한 자세이다. 결국 그것은 모리스 블랑쇼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여기서 나는 인체가 도전적으로 자신을 '행복한 낙원주의자'라고 선언했던 푸코가 위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위험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매를 기다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는 우리가 당연한 위험들을 일일

이 나열하지는 않은 채, 그러나 날카롭게 감지하고 있었다.”

놀람과 두려움에서부터 전략들(푸코의 작품은 그 분석으로 가득 차 있다)과 초기의 탐닉이 생겨났는데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이 초기의 상태에서 그는 곧 회복되었다. 사람들이 자명성이라고 묘사했던 그 확신에 찬 감정들이 사유의 주요 도구였다. 고문서는 그 도구들의 결여를 열어 짓하는 최초의 필요한 장치였을 뿐이다. 고문서, 그것은 권력에 의해 이름지어지고 권력의 말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을 명명하려는 사람들의 정의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의명의 얼굴들이 솟아나는 장소이다. 전혀 빛을 보지 못했을 사람들에 대한 찰마한 호소인양, 미셀 푸코는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오래 전에도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나는 이 비슷한 자료들을 사용했다. 내가 오늘날까지도 느끼는 그 떨림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여기서 『광기의 역사』를 암시한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뜻밖의 방식으로 보이겠지만 그의 성찰의 출발점을 밝힌 것이다.

또 다른 요소가 이 철학자와 배제의 고문서 사이의 관계를 수립해 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마주친 텍스트나 말들에 의해 묘사된 얼굴들이 전형적인 케이스나 아니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들 역사학자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원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 낯설고 피상한 하찮은 사람들 사이로 가로질러 건너감을 의미한다. 아름다움과 극적인 상황의 결합, 정신의 혼란에 사로잡힌 하찮은 사람들의 놀라움,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인물들의 의명성 등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푸코는 분노, 격분, 정열 등으로 깊이 각인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를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계략의 과감함,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사를 형성하는 엄청난 범죄, 또는 그들의

비천함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위대함과 범속함이 혼합되어 있다. 이 두 현실(위대함과 연민스러움)의 마주침이 결국 푸코의 ‘존경심’을 끌어들였다. 이 존경심이 모든 지형학과 범주화의 기도를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지평을 열었고 우리 전체를 포함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 고문서의 인물들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조명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권력과의 충돌에서 왔으며, 이 차원은 철학자에게 있어서 절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에서 그는, 흔히 그랬듯이 자신을 크게 꾸짖으며 이 경우를 해명할 필요를 느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을 넘을 수도, 저쪽편으로 넘어갈 수도, 다른 곳 혹은 밑에서부터 오는 언어를 들을 능력도 없는 당신이 언제나 권력 밑에서 권력이 말하는 것, 권력이 말하게 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왜 이들 인생이 말하는 장소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가?<sup>2</sup>

이처럼 자기 자신을 문제삼는 방식(사실은 남이 문제삼는 방식)에 대해 푸코는 고문서의 표면에 떠오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답을 하고 있다. 그것은 눈부신 조명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권력이 자신의 권포(權 포) (권위를 상징하는 도안 그림) 속에 당신을 사로잡아 넣기 때문이다. 그의 분석은 권력이 일상적 삶을 장악하는 끝없는 길(눈에 띄진 은폐되었던 간에)과 다양하게 분기(分岐)된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나팔들 속의 권력의 방종함(비극적 파장)을 설명하고 있다. 고해성사에서의 고백 이후 수많은 지배 효과에 의해 그것과 교대(交代) 경력이 이제 사람들의 잘못을 주적하여 기입하고 있다. 그 도정은 분명하다. 여기에도 여전히 놀람과

두려움이 있다. 사람들을 강제하는 권력에 의해 조명된 분노의 인물들과 마주했을 때 우선 놀람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 특별한 감정이 그 불쌍한 사람들의 출현 동기를 분석하는 양식.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수립된 권력관계의 양식을 창조했다. 미학, 공포, 존경심이 역사적, 철학적 성찰을 생겨나게 했다.

이상하게도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거의 잊혀지기까지 했다. 그가 예고했던 책이 나오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어떤 윤리학적 선택에서 푸코가 너무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인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이 '치욕적인 인간들'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이상한 명칭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18세기의 경찰이나 감옥의 기록에서 치욕은 동성연애를 지칭하는 형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치욕이 동성연애의 영역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질 들뢰즈는 말 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문제라고 했다. 나체의 '인간 말쑥'과 비슷하게 그는 "작지만" 울림이 큰 사람이라고 썼다. 치욕적인 인간은 분노로 고향을 질렀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된 보통 사람이다. 그때부터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한갓 권력 관계의 미세한 파편이자 특이한 삶의 양식의 돌출일 뿐이다. 권력은 이 삶의 양식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스스로 말하도록 강요한다. 이 삶의 파편(또는 파편화된 삶들) 속에 그것과 맞닥뜨린 사람의 감동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감동과 미학을 동원하여 자신의 덧없는 분노를 표출해낼 공간을 마련할 수천개의 가능성도 이미 들어있다. 질 들뢰즈는 이미 거기서 미셀 푸코의 최종적인 주제인 주관화를 간파하고 있다." 이 분야를 언급할 만큼 나는 충분한 철학자가 아니지만, 그 악명의 얼굴들의 힘이 우리의 전통적 분류 방법을 교란시켜 우리의 분석으로 하여금 이

미 이정표가 세워진 길에서 벗어나게 강요하고 그 회미한 불빛으로 거대한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은 충분히 역사학자이다. 그들의 존재를 문제삼고 권력과의 기능 양식을 질문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그들 덕분에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관찰한 덕분에 그들에 대한 수많은 개입의 양식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한 권력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개입의 양식들은 이러한 존재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 험뎃고, 거부되고, 억눌려 자아된 사람은 파괴된 권력의 증거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파괴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권력의 분신이지만 아무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의 주요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미셀 푸코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 참여에 집착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치욕적인 인간들의 삶」이야말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의 시도이다. 더더구나 그것은 그가 자료와 만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근본적인 개입이고 자신의 근본적 입장 취하기에 대한 추론적인 이야기이다. 고문서를 창조하며 느낀 「육체적 텔링」은 비밀과 아서움이 끝내 해소되지 않은 하나의 삶과 동반하며 자신을 해명하는 사유 양식이다. 아름다움, 두려움, 놀라움은 질문이 자리잡는 장소들이다. 존경심은 빛을 비추어 주되 눈을 멀게 하지는 않는다. 그 감정과 말들은 심술궂은 장난기로 시리지는 하나의 빛을 끊임없이 던지고 다시 거둬들이는 이상한 다이아몬드들이다.